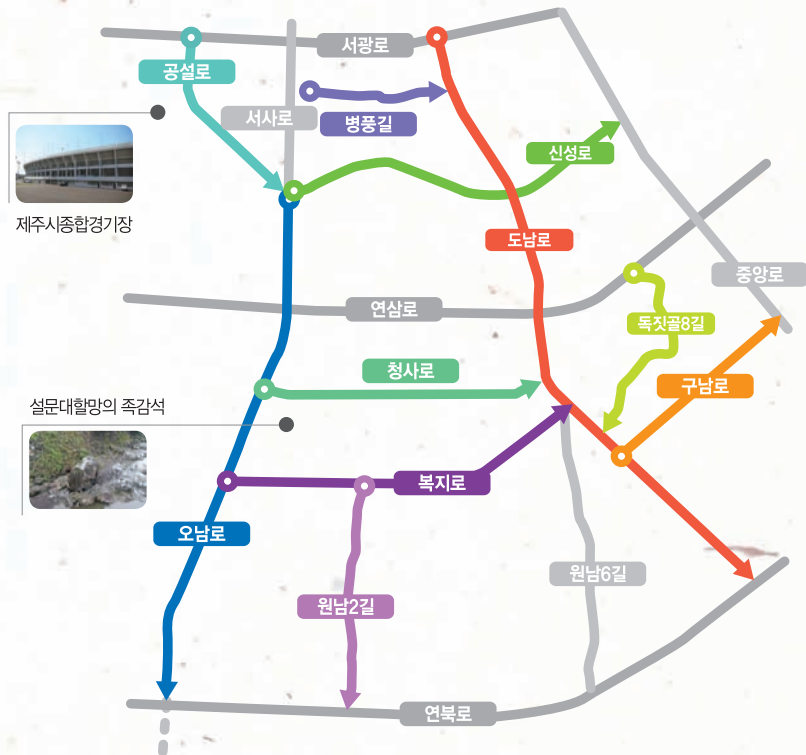


# 유배인 박영효



갑신정변의 주축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꿨던 박영효는 우여곡절 끝에 유배인의 신분으로 제주에 오게 된다. 제주와 그의 인연은 제주 농업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도남로** | 제주시 도남동 914 ~ 제주시 아라1동 2568(약 2km)
- 구남로** | 제주시 이도2동 1909-125 ~ 제주시 이도2동 1025(약 0.6km)
- 독짓골8길** | 제주시 도남동 80 ~ 제주시 도남동 69-1(약 0.7km)
- 신성로** | 제주시 오라1동 1185-9 ~ 제주시 이도2동 2454-5(약 1.2km)
- 청사로** | 제주시 도남동 572-4 ~ 제주시 도남동 746-3(약 0.9km)
- 복지로** | 제주시 도남동 676 ~ 제주시 도남동 101-1(약 1.2km)
- 공설로** | 제주시 삼도1동 561 ~ 제주시 오라1동 2451-6(약 0.6km)
- 오남로** | 제주시 오라1동 1023-9 ~ 제주시 오라2동 179-5(약 3.9km)
- 병풍길** | 제주시 삼도1동 575 ~ 제주시 삼도1동 583-14(약 0.5km)
- 원남2길** | 제주시 도남동 1109-3 ~ 제주시 도남동 1172(약 0.7km)

## 도남로 / 구남로 / 독짓골8길 | 도남동과 구남동



**도남로**는 도남동을 지나는 중심도로이다. 이 지역은 마을을 지나는 병문내를 중심으로 동쪽을 도남동으로, 서쪽을 구남동이라 한다. 도남동은 예전에 돌로리 또는 도로리라고 불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과거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이웃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유독 이 마을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빼놓는다’의 의미로 돌로리라고 했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 도남동

구남동은 지관이 ‘이곳에 사는 사람은 아들 아홉 형제를 보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마을의 이름을 딴 **구남로**는 이 도초등학교에서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구남동은 ‘독짓골’과 ‘거르송이’ 두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독짓골은 한 지관이 이 마을의 지세를 살펴보고 ‘독자형(獨子形)’이라고 말한 후부터 ‘독짓골’로 불렸다고 한다. 지금은 개발이 되면서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독짓골8길**과 같은 길 이름에서 옛 자취를 찾을 수 있다. ‘거르송이’는 유배인 박영효가 걸어서 올라온 마을이라는 뜻에서 ‘걸어승이’에서 ‘거르송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박영효는 비교적 자유로운 유배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신성로 | 박영효

종합경기장 동쪽에 나 있는 **신성로**는 신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곳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고종의 부마였던 박영효는 갑신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지만 삼일천하에 그친다. 그 후 두 번에 걸친 일본 망명생활 끝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07년 고종이 일본에 의해 왕위를 강제로 넘겨주게 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양위에 앞장선 대신들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에 유배되었다. 처음에는 제주성 안에 있던 산짓골에 머무르다 구남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박영효는 구남동 일대에 넓은 땅을 마련해 과원을 조성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신과 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이곳에서 감귤을 비롯해 감, 비파, 대추, 석류 등과 양파, 토마토 등의 작물들을 기르고 제주 사람들에게 권장하였다고 전한다. 보리나 조 등을 주로 재

배하던 제주의 농업에 이런 시도는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박영효는 제주의 여성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909년 라쿠르 신부가 최초의 여학교인 신성여학교를 세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제주여성들도 비로소 제대로 된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후 신성여학교는 신성여자중·고등학교가 되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현재는 월평동으로 학교를 옮겨 제주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 청사로 / 복지로 / 공설로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제주시종합경기장

**청사로**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를 의미하는 길이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는 제주의 곳곳에 있던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하나의 건물에 세무서, 병무청, 조달청, 우정청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 보다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청사로** 남쪽으로는 복지타운 개발사업지구를 의미하는 **복지로**가 나란히 나 있다. 이곳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복지타운 인근에 물과 빛이 어우러진 분수를 조성해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 밖에도 청사 서쪽에는 제주보건소가 있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설로**는 제주시종합경기장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공설운동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된 공설동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시종합경기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정구장 등을 갖춘 종합경기장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경기들을 개최하고 있다. 대회가 없을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시종합경기장

### 오남로 / 병풍길 / 원남2길 | 한천과 병문천

**오남로**는 오라동을 남쪽으로 연결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오남로**에는 방선문계곡을 거쳐 도남동까지 내려오는 한천이 지나는데 이 하천에는 설문대할망이 머리에 썼다는 커다



설문대할망의 족감석

란 돌인 족감석이 있다. 설문대할망의 족두리 설화는 제주 사람들이 속옷을 만들어주면 설문대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주 사람들이 재료가 부족해 속옷을 완성을 못하자 쓰고 있던 족두리를 이곳에 벗어두고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갑자기 냇이 나가면 이곳에 와서 빌었다고 한다. 그러면 효험이 있어 아이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청사로와 복지로 사이에 있는 오남로의 고지교에서 동쪽 방향의 하천을 보면 족감석을 찾을 수 있다.

도남로와 이어지는 **병풍길**은 병문천의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병문천은 한라산에서 시작되어 오등동을 거쳐 도남동으로 흘러든다. 하천 양쪽의 벽이 병풍을 두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병문천이라고 불린다.

복지로와 병문천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원남2길**이 연북로와 복지로를 연결한다. 원남이라고 부르던 이 지역의 옛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원남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남이 다니던 남쪽에 있던 길이라는 데서 원남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달리 원남밭이라는 또 다른 지명을 원남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밭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원남이라는 지명은 두 가지의 해석이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